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제 4강 논박술의 한계와 그 대안

◆ 1교시 논박술의 한계와 그 대안

▲ 지난 시간 정리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국가』 1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좀, 그 1권에 나온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2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첫 시간에, 그러니까 1권하고 2권부터 10권을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1권의 경우에는 소크라테스, 이제 그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이고, 2권부터 10권까지는 중기 대화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 1권의 경우에는 이제 소위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주로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것을, 그 뭐 『국가』 1권의 경우에는 정의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대화 상대방이 정의를 뭐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대답이 어떻게 해서 틀렸다, 하는 것을 논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때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정의가 뭔지 모른다고 무지를 이제 고백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요. 으흠. 그리고 이제 그 대화편이 끝날 때 가더라도 애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끝나는 형태. 그런 것을 보통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는, 그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의 경우에는 이게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초기 대화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아직까지도 특히 국내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학자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시기하고 상관없이 그 문체상의 차이만 주목을 하자. 문체가 그런 방식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뭐,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 이제 말하자면 등장인물이 특히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이 이야기하구요. 무지를 고백해서 나는 뭐, 정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경우엔 자기가 정의가 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그 『국가』 2권부터 10권까지는 소크라테스가 이런저런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나 그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definition, 정의를 내려주는 규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특히 『국가』 4권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그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과 그렇지 않은 대화편은 문체상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국가』 편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권은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 2권부터 10권까지는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라고

할 수 없는 성격. 그러니까 1권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뭔지 모른다고 그러고서, 정의가 뭔지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보고서 그 트라시마코스나 폴레마르코스가 이제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논박을 했고요. 2권부터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크라테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그 차이가 나냐? 차이가 나는 걸로 볼 때, 뭔가 좀 통일성이 없지 않냐? 통일성이 없으니까 그 통일성이 없는 이유를, 1권은 따로 독립적인 대화편으로 하나 쓰여졌었는데 초기에... 나중에 중기쯤에 가서 소크라테스가 뭐 좀 원숙해졌을 때, 50살 이상 먹었을 때, 이럴 때쯤에 그 2권부터 10권까지는 썼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유행했고요.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고요, 박종현 선생이 번역하신 『국가』, 서광사에서 나온 『국가』에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1권은 초기 대화편이고 2권부터 10권은 중기 대화편이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굳이 그렇게 1권하고 2권부터 10권이 나뉘어서 쓰였다는 것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이 대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왜 1권은 그렇게 소크라테스적인 그 문답방식의 대화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논파하는 방식의 대화편이라고 한다면, 왜 2권부터 10권까지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설명해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은, 그리고 이제 제가 맞다 생각하는 방식은 그 플라톤이, 저자인 플라톤이 『국가』 편의 1권하고 이제 그 2권, 10권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논박의 방식이 성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들이 초기 대화편이라는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들이 그 많은 경우에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일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은 무조건 다 초기 대화편이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지, 저도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들이 초기 대화편이라는 생각에 찬성을 하구요.

▲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의 논파 형식과 그 목적 - 실천적인 관심

그때 그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들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논박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논박을 왜하냐?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누군가가 이제 용기가 뭐다, 절제가 뭐다, 정의가 뭐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을 하겠죠.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용기가 뭔지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문제 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는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나는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악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독재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 유대인들을 죽인다든지... 나름대로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것이 용기 있는 일이다, 이것이 절제 있는 일이다, 혹은 뭐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서 어떤 행동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네가 지금 이게 용기다, 이게 절제다, 이게 정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너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있는 것이 아

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논파의 방법이구요. 이것은 그리스어로 엘렌코스(elenchos)라고 부릅니다, 엘렌코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에 주로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을 바로 이 논파의 방법, 논파술, 혹은 이제 그 엘렌코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사실은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그 보여주는 방식이 되겠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너는 아는 게 아니다. 알면 한 번 설명해봐라. 설명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어떤 대답을 내리면 이러이러해서 그 대답이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논파를 도대체 왜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들에 보이는 소크라테스의 논파를 도대체 왜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이론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떤 절제에 대한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용기에 대한 어떤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용기의 데피니션을 내려 보라, 정의를 내려 보라, 그리고 나서 그 정의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논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천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논파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이 용기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네가 생각하는 이것이 용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 다든지, 뭐 요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논파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네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 이론적으로 틀렸다, 이런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진정한 삶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논파를 하는 건데요.

▲ 『국가』에 드러난 논박술의 한계

문제는 논파됐다고 해서 사람의 행동이 바로 바뀌느냐? 잘 안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논파는 당했는데, 논파 당하건 말건, 그래, 실컷 말싸움에서 졌어요. 말싸움에서 지고서, 뭐 내가 말싸움에서 졌어, 너는 너대로 살아, 뭐 너 내가 말은 딸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는 이해한 대로, 원래 내가 살던 대로 살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논파하는 것만 가지고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뭐 내가 이제 말싸움에서 이런 건 할지 몰라도 실천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바꿔 놓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이제 『국가』편 같은데서 바로 논파의 방법이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가』 1권을 통해서 보여주고, 논파의 방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논파의 방법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지고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게 이렇다, 저게 이렇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자인 플라톤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의 대화편에 큰 분량입니다만, 앞부분에선 소크라테스가 그 논파하는 그런 소크라테스. 플라톤 자신이 자신의 초기 대화편에서 그랬던 모습의 그런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그 좋은 어떤 통일성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구요. 그럼 이

제 이거 물론 이제 해석이에요. 이것도 뭐, 해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에 따르면 1권은 따로 독립적으로 쓰인 것이라는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해석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1권하고 2권-10권을 하나의 대화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논박술의 한계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 논박술의 한계 - 케팔로스의 예

그런 해석의 증거는 도대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 1권에 등장하는 세 명의 대화 상대자. 처음에 이제 케팔로스와 그 다음에 폴레마르코스, 그 다음에 트라시마코스, 이 세 명의 대화 상대자가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크라테스적인 논박술의 한계들을 보여주는 그 예들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 그 케팔로스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상기를 해보면요. 케팔로스는 바로 그 폴레마르코스의 아버지구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처음에 등장할 때 그 때 재무를 좀 관리하다가 와가지고 소크라테스랑 얘기를 하다가 소크라테스가 어떤 질문을 막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아 뭐 이제 제사지내야지 된다고 떠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 논변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논변에 대해서 좋아한단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보다 어떻게 사는지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건한 삶,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논증 같은 것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굳이 논파할 필요가 그렇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물론 케팔로스 자신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정의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그 대화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케팔로스가 얘기한 것은, 당신 나이 들었는데 어떠냐? 이런 얘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물어봤을 때, 케팔로스가 못한 사람은 나이트 것 불평하지만, 뭐 그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나이 들어서 오히려 더 좋다, 예전 같으면 무슨 뭐 성욕이라든지 뭐 이런데 휩싸여 가지고 잘 살지 못할 유혹들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그런 욕망들 같은 것이 이제 사그라져서 오히려 잘 사는 데에 좀 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은 게 왜 좋냐,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특별히 그 어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못한 사람은 오히려 돈만 많다고 해서 그 삶이 괜찮은 것이 절대로 아닐 텐데, 나의 경우에는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거짓말 같은 것,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짓말해서 남 속일 필요 없고, 내가 무슨 어디 빚진 것이 있으면 빚진 것 잘 갚을 수가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점이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있는 게 좋은 점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구요. 특별히 돈을 특별히 아주 막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 해석이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케팔로스가 사실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1권에 좀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특별히 돈을 막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논증 없이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소크라테스적인 방법, 이 논파하는 방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옳은 거야? 막 따져가지고, 막 따지면 결국에... 그 이 사람 사실 이제 그 앎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철학자처럼 무슨 앎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정의가 뭔지, 이런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진정한 앎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의,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이 앎 하고 믿음을 나누게 되면, 앎 하고 이제 그 믿음의 경우에, 이제 그 믿음에 좀 어떤 참인 믿음이라는 것을 부가를 좀 시켜봅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거짓말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케팔로스는 거짓말을 안했던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슨 종교적인 믿음 같은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참인 생각이예요. 적어도 그 맥락에선 거짓말하면 안 되는 맥락이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짓말하는 것이 안 좋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설명 못하는 사람이에요.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앎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진정한 종류의 그 앎을 가져야지, 각각의 순간에 이것이 왜 좋은지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소크라테스의 논박이 보여준 것은 뭐냐 하면 네가 다 설명해낼 수 있으면 논박당하지 않을 거다, 네가 진정한 앎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엘렌코스, 그 논박의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진정한 앎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그 사람은 논박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대답할 수 있겠죠,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런데 아는 것은 아니고 참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막 던지면 막 헛갈려요. 대답 잘 못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왜 도대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왜 사람 죽이면 도대체 안 되는데? 왜 그 인간이 평등한데? 뭐 이런 질문을 막 던지게 되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뭐 저도 잘 대답 못하겠어요. 그 왜 사람들이 평등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앎은 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살 수가 있던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런저런 논박을 해서 이 사람을 깨트리는 것은, 논증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전혀 도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목적이 이론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천적인 목적인다고 할 때 말이죠. 이론적인 목적, 순수하게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한다면, 정의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접근한다고 한다면, 뭐 이론적으로 가능한 경우 다 따져봐야지 되겠죠. 따져보고서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어떤 진리를, 진리의 이론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고 얘기할 때는 케팔로스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논박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 논박술의 한계 - 트라시마코스의 예

폴레마르코스 조금 이따 얘기하구요.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말싸움에서는 졌지만 그냥, 그래 너 이겼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구절 같은 것이 특히, 그 소크라테스하고 트라시마코스의 논의가 이제 계속 진행되어가다가... 처음에 트라

시마코스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등장합니다. 뭐 짐승처럼 다, 이렇게 무슨 찢어죽일 듯이 다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계속 깨져요. 소크라테스한테 계속 깨지니까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나면, 아 그래, 너 말해, 너 잘났어, 뭐 그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구절이 뒷부분에 가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354a-b. 『국가』를 가지고 계시면 119쪽입니다. 119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제 거의 이게 1권 끝입니다. 1권 끝에 “정의롭지 못한 것이 정의로운 것보다 결코 더 이득이 되지 못한다.” 이러니까 “야, 이거야말로 벤디스 여신의 축제일이 선생을 위한 축하 잔치로 되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만 딱 떼고 나면, 요 맥락에서 무슨 소린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와~~ 만세. 말싸움을 하다가 내가 지니까 그래그래, 잘났어, 이렇게 박수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 진짜 정의가 부정한 것보다 좋다고 생각 안한다는 얘기에요, 트라시마코스가. 말은 졌어, 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로운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말싸움만 진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말싸움의 논박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그 『고르기아스』라는 대화편에 나오는 칼리클레스 같은 사람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끝에 가서 소크라테스가 막 논박을 하면 그래그래, 너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 그냥 맞장구만 내가 쳐주겠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거의 자기 생각을 얘기도 잘 안하구요.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닳을 대로 닳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소피스트로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말싸움에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싸움에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랑 맞붙어서 깨졌지만, 한 번 지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 논박술의 한계 - 폴레마르코스의 예

중간에 이제 등장을 하는 폴레마르코스는 젊은이예요, 젊은이. 이 사람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폴레마르코스를 논박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떤 그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케팔로스하고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케팔로스의 아들로서 그 논의를 이어받아서 이제 논의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모니데스라는 시인 이야기도 끌어들이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리스인들이, 또 아테네인들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트라시마코스는 전통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생각을 얘기하지만, 케팔로스와 폴레마르코스는 전통적인 생각을 이야기해요. 케팔로스는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트라시마코스하고 달리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늙은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죽을 때가 다, 죽을 날이 다가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다, 부정한 것이 무엇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완전히 체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앎은 없지만, 케팔로스가 앎은 없지만, 그냥 어떤 믿음이 그 삶에 체화가 되어있어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폴레마르코스는 젊은인데,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논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통적인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케팔로스의 경우에는 이 사람 논파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사람은 그냥 어차피 경건하게

살 사람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논파하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젊은이, 특히 이제 그 나이 어린 그 사람들의 경우에 말싸움 해가지고, 이제 누가 얘기하면 이제 깨트리고 하면 이제 재미가 붙어요.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 다음엔 돌아다니면서 너 이거 틀렸네, 한 번 얘기해봐, 너 틀렸네, 이라고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소크라테스도 그러고 다녔던 건데, 역사적인 소크라테스가.

▲ 논박술의 불필요함, 혹은 위험성

그러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플라톤의 대화편 이곳저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파이돈』 편에서 읽을 수가 있고요. 『국가』 편에도 나중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하면, 젊은 애들한테는 철학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아예, 7권 같은 데 보면. 철학 배워가지고 괜히... 그 철학이라는 말이 변증술을 이야기하는 데, 변증술이라는 것이 질문하고 이제 대답하고, 뭐 이렇게 1권에서 진행된 방법들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좀 나이 들고 나서 배워야지, 아주 젊은 애한테는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상 국가, 『국가』 편에서 그려진 이상 국가에서는 젊은이는 변증술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그 논파하고, 뭐 이러는 거 배우면 거기에 재미가 붙어서, 그것 자체에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서 논파하는 것이 아니라 논파하는 것 자체에 재미가 붙어 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거 이제 논파하고 다니고,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믿음이 논파가 돼요. 논파 몇 번 당하고 그러다 보면. 아! 지금 이렇게 말만 잘하다보면,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말싸움해서 이길 수가 있겠네! 더더군다나 당시 아테네 사회, 그 민주주의 사회,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소피스트들이 말 잘하는 법들을 가르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배우면 돌아다니면서, 너 이거 틀렸어. 예를 들면 도둑질 하면 안 돼. 도둑질 안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왜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건지 설명해봐! 이렇게 논파하고 다니면, 어, 도둑질해도 되나? 뭐 잘 모르겠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되고 전통적인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되죠.

트라시마코스는 전통에 어긋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것이 이득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한 것이 이득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정의한 것이 단순히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훌륭한 것이다. 훌륭한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이다. 그래서 좀 그 모자라게, 좀 걸리게 그렇게 부정의한 행동하지 말고 힘을 길러서 걸리지도 않고, 혹시 걸리면 처벌받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훌륭함이다. 이런 생각들... 트라시마코스과 같은 전통에 어긋나는 생각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자면 사회에 파괴적인 그런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케팔로스는 논파해봐야 소용없는 사람이예요. 트라시마코스도 논파해봐야 소용이 없는 사람이예요.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사람은 논파당하든 말든, 원래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구요. 이 사람은 논파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원래대로 그 부도덕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예요. 트라시마코스로 대변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젊은이는 논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논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향을 아예 안

미쳐요, 되든 말든. 이 사람은 논파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오히려 특히 그 아테네 민주주의 사회 같으면 ... 사실 이 아테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날의 사회에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논파당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포스트 모던한 사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포스트 모던한 사회라는 것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 전통적인 어떤 가치체계의 어떤 억압적인 것들, 이런 것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것이 다 틀렸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옳은 거냐? 옳은 것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 각자 자기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건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폴레마르코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1권에 등장하는 세 명은 각각이 이전의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엘렌코스, 논박술의 방법이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위험한 그런 대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논박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형식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2권부터... 그러니까 1권에서 그런 것을 한 번 보여주고 나서 『국가』 2권부터 10권에서는 뭔가 좀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도대체 왜 논박술의 방법이 성공할 수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도 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국가』 1권하고 2권부터 10권은 분명히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문체가 다르고요. 『국가』 1권의 소크라테스는 논박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2권부터 10권까지의 소크라테스는 논박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뭐냐? 1권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리저리 논박을 하지만, 그 때 대화 상대자로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가 소크라테스적인 논박술이 성공하기 어려운 유형들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권부터는 논박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데, 그 대화 진행되는 그 장소에서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가만히 보면 왜 논박술이 성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진단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국가』 편 전체가 내용과 형식의 통일성이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 편의 그 영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영혼 삼분설, 이런 것이 등장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논박술이 성공할 수 없고, 논박술 대신에 어떤 것이 대안으로, 어떤 방식이 사람들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2권부터 10권까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오히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로 그 1권에서 논박술이 실패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드라마적인 형식과 그 『국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오히려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